

## **Session 4 Biblical Signs of the Times Related to Israel**

### **이스라엘과 연관된 성경의 시대의 징조**

#### **I. THE END-TIME SCRIPTURES ARE JERUSALEM-CENTRIC**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예루살렘 중심이다

- A. In Scripture, Israel and Jerusalem are the reference point in discerning God’s timetable for His end-time plans. His end-time purpose is *Jerusalem-centric*—His “prophetic calendar” or end-time plans advance particularly related to Israel being in the promised land, living in Jerusalem (under Israel’s jurisdiction) with a functioning temple. The most striking events in prophecy are the return of the Jews to their homeland to re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and to gain control of *Jerusalem*.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목적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분의 “예언적인 달력,” 또는 마지막 때의 계획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음)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진행된다. 성경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지배하게 된 사실이다.

- B. Many end-time prophecies related to Israel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and overlap. They include Israel in the land, the re-establishing of Sabbath laws, speaking the Hebrew language, etc.

이스라엘과 연관된 많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 예언들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있게 되며, 안식일 법을 다시 세워지며,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등이 있다.

#### **II. THE REBIRTH OF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TURN OF JEWISH PEOPLE**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 그리고 유대인들의 귀환

- A. In one day, Israel became a nation on May 14, 1948, and later they gained control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June 1967). No prophetic sign is more dramatic or convincing. The Jews were scattered to the nations in AD 70. Now, 2,000 years later, they are back home.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나라가 되었으며, 이후에 6일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1967년 6월). 다른 어떤 예언적인 징조도 이보다 극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열방으로 흩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와 있다.

<sup>8</sup>*Who has heard such a thing? Who has seen such things? Shall the earth be made to give birth in one day? Shall a nation be born at once?...Zion...gave birth to her children. (Isa. 66:8)*

<sup>8</sup>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사 66:8)

<sup>8</sup>*In the latter years you [Gog=the Antichrist] will come into the land of those [Israel] brought back ... and gathered from many people [nations] on the mountains of Israel, which had long been desolate; they were brought out of the nations, and now all of them dwell safely. (Ezek. 38:8)*

<sup>8</sup>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곡 =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이스라엘]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열방]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겔 38:8)

<sup>6</sup>*“In that day...Jerusalem shall be inhabited again in her own place—Jerusalem.” (Zech. 12:6)*

<sup>6</sup> 그 날에 ...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슌 12:6)

B. **Returning to the land:** The Lord said that His people would return to the land. Over one million Russian Jews have moved to Israel since the 1990s. This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Israel.

자신의 땅으로의 귀환: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백만 명이 넘는 러시아 유대인들이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sup>14</sup>*“Therefore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that it shall no more be said,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land of Egypt,’<sup>15</sup>but,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land of the north and from all the lands where He had driven them.’ For I will bring them back into their land which I gave to their fathers.*

(Jer. 16:14-15)

<sup>14</sup>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sup>15</sup>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렘 16:14-15)

### III. THE TEMPLE, SABBATH LAWS, HEBREW LANGUAGE, AND THE MILITARY

성전, 안식일 율법, 히브리어, 그리고 군사력

A. **Temple:**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in Jerusalem with animal sacrifice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is at the heart of the prophetic promises and signs regarding Israel in the end times (Mt. 24:15; Mk. 13:14; 2 Thes. 2:4; Rev. 11:1-2; 13:12-18; cf. Dan. 9:26-27; 11:31; 12:11).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며 동물의 희생 제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러지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핵심적인 예언적 약속과 징조이다 (마 24:15; 막 13:14; 살후 2:4; 계 11:1-2; 13:12-18; 비교. 단 9:26-27; 11:31; 12:11).

1. The temple in Jerusalem has not existed since it was destroyed in AD 70.

예루살렘에는 AD 70 년 이래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2. Today, there is a strong new movement in Israel to rebuild the temple.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강력한 운동이 있다.

- B. **Sabba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Sabbath in the social and civil law is a sign of the times (Mt. 24:15-20).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related to the Antichrist’s worldwide worship system) occurs in context to a rebuilt temple in Jerusalem and the re-establishing of Sabbath laws. The two main components of “the abomination” are the *image* and the *mark* of the Beast (Rev. 13:15-18).

**안식일:** 사회와 법률적으로 안식일이 다시 재정되는 것은 시대의 징조이다 (마 24:15-20). 멸망의 가증한 것(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경배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며, 안식일 율법이 다시 재정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가증한 것”의 두 가지는 **우상과 짐승의 표**이다 (계 13:15-18).

<sup>15</sup>*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sup>16</sup>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sup>20</sup>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or on the Sabbath. (Mt. 24:15-20)*

<sup>15</sup>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sup>16</sup>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 <sup>20</sup>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 24:15-20)

- C. Today, the Sabbath on Saturday has bee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law as an official day of rest.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을 하는 것은 국법으로, 국가적인 안식일로 정해져 있다.

- D. **Hebrew:** The re-establishment of the Hebrew language as Israel’s official language occurred on May 19, 1948. No nation has ever maintained its national language without a homeland for more than one generation. For Israel to establish their ancient language after 2,000 years is unprecedented in history. Many see the establishing of Hebrew in Israel as part of fulfilling Zephaniah’s prophecy.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1948 년 5 월 19 일에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다시 재정되었다.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언어를 한 세대 이상 보존한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이 2,000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고대의 언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다시 재정하는 것이 스바냐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sup>9</sup>*Then I will restore to the peoples a pure language, that they all ma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to serve Him with one accord. (Zeph. 3:9)*

<sup>9</sup>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슘 3:9)

<sup>9</sup>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한글 KJV, 습 3:9)

- E. **Military:** The restoration of a military in Israel in the end-time (Zech. 9:13; 10:3-7; 12:6-9). Zechariah developed the theme of the Lord being with the military force as He was with David and empowering the Israeli army to resist the Antichrist even *before* Jesus returns (12:6-9).

**군사력:**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회복될 것이다 (습 9:13; 10:3-7; 12:6-9). 스가라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저항하도록 힘을 주시는 주제를 발전시켰다 (12:6-9).

<sup>5</sup>“*They shall be like mighty men, who tread down their enemies in the mire of the streets in the battle. They shall fight because the LORD is with them...* (Zech. 10:5)

<sup>5</sup>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와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습 10:5)

<sup>6</sup>*In that day I will make the governors of Judah like a firepan in the woodpile...they shall devour all the surrounding peoples...* <sup>8</sup>*In that day the Lord will defe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one who is feeble among them in that day shall be like David...* (Zech. 12:6-8)

<sup>6</sup>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 <sup>8</sup> 그 날에 여호와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 (습 12:6-8)

#### IV. THE SALVATION OF ISRAEL

##### 이스라엘의 구원

- A. Jesus will not forcibly take the kingship over Israel, but will wait until it is given to Him by those in positions of authority over the land. He prophesied that He would not come back to Jerusalem until the leaders of Israel ask Him to reign over them. He “bound” Himself by this prophecy.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제로 취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진 이들이 그분께 왕권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구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분은 이 예언에 그분 자신을 “묶어두셨다.”

<sup>37</sup>“*O Jerusalem...how often I wanted to gather your children...but you were not willing!*

<sup>38</sup>*See!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sup>39</sup>for I say to you, you [leaders of Israel] shall see Me no more til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Mt. 23:37-39)

<sup>37</sup> 예루살렘아 ...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sup>38</sup>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sup>39</sup> 내가 너희[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 23:37-39)

- B. Israel's leaders are the official representatives of that national covenant with God. Jesus will rule from Jerusalem only *after* Israel repents and asks Him to be their king (Acts 3:19-21).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구한 **이후에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행 3:19-21).

<sup>19</sup>“**Repent therefore and be converted** [Israel]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so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sup>20</sup> **and that He may send Jesus...** <sup>21</sup> **whom heaven must receive [retain] until the times of restoration of all things.**” (Acts 3:19-21)

<sup>19</sup> 그러므로 너희[이스라엘]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sup>20</sup>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sup>21</sup>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KJV 흠정역: 받아들여야 하리라] (행 3:19-21)

<sup>6</sup>*This is Jacob,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sup>7</sup>*Lift up your heads, O you gates...be lifted up, you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Ps 24:6-7)*

<sup>6</sup>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한글 KJV: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 <sup>7</sup>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 24:6-7)

- C. Today there are over 120 Messianic congregations in Israel, totaling more than 15,000 believers. In a survey of Messianic believers in Israel (taken in 1999) the number of congregations had increased from 2 (1970) to over 80 (1999); the number of Jewish believers had, from 1970-1999, increased from under 200 believers to over 2000 believers. Messianic congregations are seeing more Jewish people in Israel come to Jesus than at any time since the first century.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120 개가 넘는 메시아닉 유대인(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은 15,000 명이 넘는다. 1999 년에 행해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공동체의 숫자는 1970 년에 2 개였다가 1999 년에 80 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의 숫자는 1970-1999 년 사이에 200 명이 안 되는 숫자에서 2,000 명이 넘는 숫자로 증가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은 1 세기 이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D. We are watching the amazing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promise of the Lord to establish night and day prayer for Jerusalem until it experiences *full revival* and transformation, proclaimed by Isaiah:

우리는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충만한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밤낮으로 드러지는 기도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적인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I have set watchmen on your walls, O Jerusalem; they shall never hold their peace day or night...<sup>7</sup> And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es and...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Isa. 62:6-7)***

<sup>6</sup>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sup>7</sup>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V. WORLD CONTROVERSY, PERSECUTION, AND ANTI-SEMITISM FROM THE NATIONS

세계의 논란의 중심, 핍박, 그리고 반 유대주의

- A. Jerusalem as a center of world controversy: The Hebrew prophets foretold that Jerusalem would be persecuted by all the nations (Zech. 12:3, 9; 14:1-3; cf. Joel 3:2, 12; Zeph. 3:8; Lk. 21:20-24). They prophesied a significant increase of Arab hostility against Israel (Ezek. 35:1-15; Joel 3:1-7).

세계의 논란의 중심인 예루살렘: 유대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다 (슥 12:3, 9; 14:1-3; 비교. 욥 3:2, 12; 습 3:8; 눅 21:20-24). 그들은 아랍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겔 35:1-15; 욥 3:1-7).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but the remnant...shall not be cut off from the city. (Zech. 14:2)***

<sup>2</sup>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슥 14:2)

<sup>3</sup> ...Jerusalem...though all nations of the earth are gathered against it [Jerusalem]. (Zech. 12:3)

<sup>3</sup>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 (슥 12:3)

<sup>24</sup>“They [Israel]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be led away captive into all nations. Jerusalem will be trampled by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Lk. 21:24)

<sup>24</sup> 그들[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눅 21:24)

- B. Today’s terrorism was prophesied by Jesus (Jn. 16:2). The initial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occurred in the first century at the hands of fellow Jews like Saul of Tarsus (Acts 9), then again by the Gentile crusaders and the Spanish Inquisition through the Middle Ages. The most dramatic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will be in the end times by Islamic terrorists, which will greatly increase (Ezek. 35:1-36:7).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을 예언하셨다 (요 16:2). 이 예언은 1 세기 다소 사람 사울과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 성취되기 시작했다 (행 9 장). 그리고 나서는 중세 시대에 이방인 십자군과 스페인의 종교 재판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가장 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겔 35:1-36:7).

<sup>2</sup>*The time is coming that whoever kills you will think that he offers God service. (Jn. 16:2)*

<sup>2</sup> ...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 16:2)

- C. The Lord said that He would first “send” fishermen (those who allure with grace) and then hunters (those who drive with fear) to hunt or trouble the Jewish people who lived in the nations. The context is the restoration of Israel as a nation. Biblical scholars believe this was hunting was partially fulfilled by persecution that led many to return to the land over the last 100 years. The biblical nuances between God “sending” and God “allowing” evil men to harm His people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Antichrist’s soldiers are the ultimate fulfillment of hunters in this passage.

주님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어부를 “보내시며” (은혜를 이용해서 고기를 피어냄), 그 후에 사냥꾼(포수)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냥하며 괴롭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어 있는 때이다. 성경 학자들은 이 사냥하는 일이 지난 100 년 간 핍박을 피해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도록 “보내시며”, “허락하시는 것” 간의 성경적인 뉘앙스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적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포수들의 존재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sup>14</sup>*“Therefore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that it shall no more be said,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land of Egypt,’<sup>15</sup> but,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land of the north and from all the lands where He had driven them.’ For I will bring them back into their land...<sup>16</sup>“ I will send for many fishermen,” says the Lord, “and they shall fish them; and afterward I will send for many hunters, and they shall hunt them from every mountain and every hill, and out of the holes of the rocks. (Jer. 16:14-16)*

<sup>14</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sup>15</sup>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sup>16</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렘 16:14-16)

## VI. THE BATTLE FOR JERUSALEM

### 예루살렘 전투

- A. The battle for Jerusalem will be the decisive battle to end the Armageddon campaign.

예루살렘 전투는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전투가 될 것이다.

<sup>2</sup>*I will gather all...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sup>3</sup>Then the Lord will go forth [second coming]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as He fights in the day of battle. (Zech. 14:2-3)*

<sup>2</sup> 내가 이방 나라들을 [한글 KJV: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 <sup>3</sup>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예수님의 재림]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슌 14:2-3)

- B. The battle for Jerusalem is a spiritual, political, and military battle for the control of Jerusalem. I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ttlefronts in the spirit today. It will only end at Jesus' second coming, when He comes to reign over the whole earth and cast Satan into prison (Rev. 20:1-3).

예루살렘 전투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정치적, 군사적 전투를 말한다. 이 곳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전선이며, 이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이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사단을 옥에 던져버리실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계 20:1-3).

<sup>11</sup>*Behold, a white horse. He [Jesus] who sat on him...makes war...<sup>16</sup>He has on His robe...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sup>19</sup>I saw the beast [Antichrist],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sup>20</sup>The beast was captured and the false prophet...these two were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sup>21</sup>The rest were killed with the sword...<sup>20:1</sup>I saw an angel...<sup>2</sup>He laid hold of...Satan, and bound him for a thousand years... (Rev. 19:11-20:2)*

<sup>11</sup>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예수님]가 있으니 ...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 <sup>16</sup>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 <sup>19</sup>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sup>20</sup>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 이들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sup>21</sup>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 <sup>20:1</sup> 또 내가 보매 천사가 ... <sup>2</sup>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19:11-20:2)

- C. Satan's strategy is to seek to exploit Jesus' prophecy in Matthew 23:39 as a "loophole" in God's end-time plan by seeking to keep the leaders of Israel from receiving Jesus as their king. Satan knows that Jesus cannot violate His own prophetic word. Therefore, Jesus cannot return to earth to rule from Jerusalem until Israel's governmental leaders beckon Him to be their king.

사단의 전략은 마태복음 23:39 절의 예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나 있는 "허점"으로 보고, 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정부 지도자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수 없다.

- D. Satan's end-time strategy includes seeking to permanently *control Jerusalem* by:
1. *Deceiving Israel* into taking the mark of the Beast (making an alliance with the Antichrist).
  2. *Killing the remnant of the Jewish race* so there are none to invite Him to rule Jerusalem.
  3. Trying to make Israel so *offended at Jesus* that they will not receive Him as their king.



사단의 마지막 때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다.

1.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함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도록 함)
2. 유대 민족의 남은 자들을 죽여버려서 아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함.
3.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

- E. Satan wants to exterminate the Jewish people so that a believing remnant cannot invite Jesus to rule Israel as her Messiah. John uses a prophetic picture of Israel as a woman being attacked by Satan as a dragon; God will protect her from total annihilation (Rev. 12:13-17; cf. Zech. 13:8-9).

사단은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버려서, 믿는 남은 자들(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로 초청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 한 여인이 용(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예언적인 그림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계 12:13-17; 비교. 슥 13:8-9).

<sup>13</sup>When the dragon [Satan] saw that he had been cast to the earth, he persecuted the woman [remnant of Israel]... <sup>15</sup>The serpent spewed water...like a flood after the woman, that he might cause her to be carried away by the flood [persecution]...<sup>17</sup>The dragon was enraged with the woman, and he went to make war with the rest of her offspring [the Church], who...have the testimony of Jesus. (Rev. 12:13-17)

<sup>13</sup> 용[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박해하는지라 ... <sup>15</sup>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핍박]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 <sup>17</sup>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계 12:13-17)

- F. The city of Jerusalem shall be taken and half its population shall go into captivity (Zech. 14:2).

예루살렘 도성은 점령되며 이 도시 인구의 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슥 14:2).

<sup>2</sup>“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but the remnant of the people shall not be cut off.” (Zech. 14:2)

<sup>2</sup>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옥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슥 14:2)

1. Jerusalem shall temporarily be taken by the Antichrist, creating the context in which Jesus delivers Israel parallel to Israel being delivered from captivity in Egypt in the days of Moses.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될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2. About 600,000 Jews currently live in Jerusalem; thus, it is possible that as many as 300,000 Jewish people will be taken as captives in final years of the Great Tribulation.

현재 예루살렘에는 약 600,000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대 환란의 마지막 때에는 300,000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G. **Two conflicting trends:** anti-Semitism in the nations and love for Israel in the Body of Christ. Many Jews and Gentiles will go into prison camps under the Antichrist's reign of terror. Jesus will deliver Israel and require the Church to stand with her like Corrie ten Boom's family did in World War II.

두 가지 경향의 충돌: 열방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공포 통치 하에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코리 텐 붐 가족들이 제 2 차 세계 대전 때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I will...give You [Jesus] as a covenant to the people [Israel]...<sup>7</sup>to bring out prisoners from the prison, those who sit in darkness from the prison house...<sup>22</sup>But this [Israel] is a people robbed and plundered; all of them are snared in holes, and they are hidden in prison houses.”***  
(Isa. 42:6-7, 22)

***“... 너[예수님]를 세워 백성[이스라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sup>7</sup> ...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sup>22</sup> 이 백성[이스라엘]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 (사 42:6-7, 22)***

- H. Scripture describes an aspect of Israel's persecution just before Jesus returns as their being in prison leading to the time when Jesus returns and delivers their captives from prison (Isa. 11:11-16; 27:12-13; 42:6-7, 22-24; 49:5-25; 61:1-2; Jer. 30:3-24; 31:1-23; Ezek. 20:33-44; 39:25-29; Hos. 11:10-11; Amos 9:8-15; Joel 3:1-2; Zeph. 3:19-20; Zech. 9:10-14).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재림하셔서 감옥에 갇힌 포로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사 11:11-16; 27:12-13; 42:6-7, 22-24; 49:5-25; 61:1-2; 렘 30:3-24; 31:1-23; 겔 20:33-44; 39:25-29; 호 11:10-11; 암 9:8-15; 율 3:1-2; 습 3:19-20; 속 9:10-14).

- I. **Salvation and persecution:** The Antichrist's attack on Jewish people will result in 2/3 being killed and the remaining 1/3 accepting salvation.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1/3 of the Jews in Israel testified of receiving Jesus as Messiah, we know that this prophecy has a future fulfillment. (The number of Gentile killed because of refusing to worship the Antichrist will be far greater).

구원과 핍박: 적그리스도가 유대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 이들은 2/3 가 죽임을 당하며, 남은 1/3 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1/3 이나 되는 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sup>8</sup>“It shall come to pass in all the land...that two-thirds in it shall be cut off and die, but one-third shall be left in it: <sup>9</sup>I will bring the one-third through the fire, will refine them as silver is refined, and test them as gold is tested. They will call on My name...” (Zech. 13:8-9)

<sup>8</sup>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sup>9</sup>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 (슌 13:8-9)

- J. The Antichrist’s attack on Gentiles and the resulting death toll and imprisonment of Gentiles will far exceed the number related to Israel. However the Lord gives special emphasis to the body of Christ to love, stand with, care for, and even suffer with the Jewish people.

이방인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며 옥에 갇히는 이방인들의 수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편에 서며, 그들을 돌보며, 때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신다.

- K. **Contradiction:** Some theologians apply the biblical *promises* of the Israel to the church but *not* the biblical *descriptions of their suffering*. Some who love Israel do something similar by applying Israel’s end times *promises* to Israel, but dismiss their *suffering* as having been fulfilled in AD 70. Both groups separate Israel’s promises from their sufferings while the Bible places them together.

**모순:**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교회에 적용하지만,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의 **약속**들을 이스라엘에 적용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받을 **고난**은 AD 70 년에 성취된 것으로 일축한다. 이 두 그룹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을 그들이 받을 고난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동시에 말하고 있다.

## VII. THE TRUE CHURCH WILL STAND WITH ISRAEL

참된 교회는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다

- A. The battle for Jerusalem will be one issue used to perfect the Church in her obedience to Jesus. Scripture calls the Church to stand with God’s purposes for Israel (Isa. 40:1-2; 62:11; Jer. 31:7-10; Joel 3:14; Zech. 12:3; 14:2; Mt. 25:31-46; Rom. 11:11, 20-22; Rev. 12:13-17). I believe it will be a litmus test of obedience. The highest issue in serving God’s purpose for Israel is obeying Jesus’ sovereign leadership. We love Him; thus, we want to do what He does and love what He loves.

예루살렘 전투는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순종을 온전케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 40:1-2; 62:11; 렘 31:7-10; 율 3:14; 슌 12:3; 14:2; 마 25:31-46; 롬 11:11, 20-22; 계 12:13-17). 나는 이 부분이 순종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과 같이 사용될 것으로 믿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겨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행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sup>27</sup>...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compromise]. (Eph. 5:27)

<sup>27</sup>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타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7)

- B. Gentile believers will eventually provoke Israel to godly jealousy to know Jesus (Rom. 10:19; 11:11). In other words, Israel will desire to have *what Gentile believers possess spiritually*. This will happen as Gentile believers show love for Israel including risking their lives to *provide refuge* for Jewish people in flight, *perform miracles* like Elijah, and be *fearless* in the face of death.

종국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 성도들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경건한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롬 10:19; 11:11). 즉, 이스라엘은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기 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도망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할 것을 알면서도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일어날 것이며,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행하거나, 이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 등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sup>11</sup>...to provoke them [Israel] to jealousy,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Rom. 11:11)

<sup>11</sup> ...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롬 11:11)

- C. In the 1930s, if even 100 pastors across Europe would have spoken clearly about the coming persecution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biblical mandate to stand with Israel, then many believers in Europe would have had time to process this biblical mandate *before* facing the challenges to their faith under Hitler’s holocaust in the 1940s. Gentile believers would have had opportunity to prepare places of hiding with provision for the Jews in flight during the 1940s.

만일 1930 년대에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중 100 명이 유대인에게 닥칠 핍박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하는 성경적인 명령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더라면, 유럽의 많은 성도들은 1940 년대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아래에서의 믿음에 도전을 받기 이전에, 이 성경적인 명령에 대해 준비해나갈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1940 년대의 이방 성도들은 도망가던 유대인들에게 숨을 곳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 D. The Lord called the Church to stand with Israel (Isa. 40:1-2; 62:6-7, 11; Jer. 31:7-10; Joel 3:14; Zech. 12:3; 14:2; Mt. 25:31-46; Rom. 11:11, 20-22; Rev. 12:13-17) in their persecution now and especially under the reign of terror of the Antichrist.

주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공포 통치 하에 있을 때 그들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하셨다 (사 40:1-2; 62:6-7, 11; 렘 31:7-10; 욥 3:14; 슥 12:3; 14:2; 마 25:31-46; 롬 11:11, 20-22; 계 12:13-17).

<sup>1</sup>“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up>2</sup>“Speak comfort to Jerusalem, and cry out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Isa. 40:1-2)

<sup>1</sup>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sup>2</sup>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 (사 40:1-2)

<sup>11</sup> The LORD has proclaimed [mandated] to the end of the world [Gentiles in the nations]: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urely your salvation is coming; behold, His reward is with Him...’” (Isa. 62:11)

<sup>11</sup> 여호와께서 땅 끝[열방의 이방인들]까지 선포하시되 [명령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 62:11)

- E. The Church must take a stand to boldly pray, declare, and sing the message of God’s purposes for Israel so that all the nations hear it clearly (Jer. 31:7-10).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노래함으로 모든 열방이 이것을 명료하게 듣도록 해야 한다 (렘 31:7-10).

<sup>7</sup> Thus says the Lord: “Sing with gladness for Jacob, and shout among the chief of the nations; proclaim, give praise, and say, ‘O Lord save Your people, the remnant of Israel!’...<sup>10</sup> Hear the word of the LORD, O nations, and declare it in the isles afar off, and say, ‘He who scattered Israel will gather him, and keep him as a shepherd does his flock.’” (Jer. 31:7-10)

<sup>7</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sup>10</sup>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렘 31:7-10)

### VIII. DIFFERENT RESPONSES OF THE JEWISH PEOPLE IN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일 다양한 반응들

- A. **Some will be supernaturally protected:** Some will remain in the land of Israel with God’s supernatural protection (Joel 2:32; 3:16; Zech. 12:10; cf. Isa. 4:3; Obad. 1:17). God will call some believers to remain in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persecution of the Antichrist.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욥 2:32; 3:16; 스 12:10; 비교. 사 4:3; 욥 1:17).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도록 부르실 것이다.

- B. **Fleeing from the land:** Some will leave the land under the Lord’s direction (Mt. 24:15, 16).

그들의 땅으로부터 도망함: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마 24:15, 16).

- C. **Apostate:** Some will stay in the land and worship the Antichrist, joining his regime.

**배교함:** 어떤 이들은 그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의 통치에 합류할 것이다.

- D. ***Killed:*** Some will die in the land of Israel at the hands of the Antichrist's regime (Zech. 13:8).

**죽임을 당함:**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슥 13:8).

- E. ***Imprisoned:*** Some will be taken as captives (Zech. 14:2; cf. Isa. 42:7, 22; 49:9, 24-25; Ps. 102:20), and some of these will be liberated by Jesus in a way that is parallel to the Jews in Egypt being liberated from captivity in the days of Moses.

**옥에 갇힘:**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슥 14:2; 비교. 사 42:7, 22; 49:9, 24-25; 시 102:20),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때에 애굽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F. ***Summary:*** Some Jews will be supernaturally protected by God in the land, others will flee in obedience to the Lord, some will join the evil regime of the Antichrist, some will be killed, and some will be taken as captives (some of whom will be set free at the return of Jesus).

**요약:** 어떤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아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입으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땅을 떠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악한 통치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며,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유케 될 것이다).